

국정과제회의

지역간 불균형이 해소 되어야 국가가 균형 발전 합니다

반갑습니다. 오늘 첫 회의입니까? 국가균형발전위 첫 회의를 뜻 깊게 생각합니다. 상투적인 말로 뜻 깊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는데 대해 특별히 뜻 깊게 생각해서 뜻 깊다 말한 것입니다.

내가 여러 약속하고 있지만 국정과제추진단에 국가경쟁력강화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이 따로 없습니다. 그래서 노무현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완전히 버렸나 보다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기술혁신, 과학입국 내세우면서도 역시 뚜렷한 것이 없어 별거 아니다라고 보기에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안이 이 전략(균형발전위 안)에 있습니다. 분권과 지방화,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라는 두개의 개념이 국가균형발전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약점은 분산형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분산형으로 가야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지방간의 갈등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. 공정한 방법이라고 채택한 일도 인사문제로 지역신문에 시커멓게 나고, 지역편중인사라고 혹은 소외감정론이니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.

이런 토대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

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합니다. 이것은 좋은 대학들이 지역산업을 이끌고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있으니 사명감 갖고 도와주십시오.